

## 21C 패션에서 보여 지는 동양적 이미지 연구

고명신\*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21세기는 20세기 후반에 발흥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지배를 받으며 이전까지의 문화, 사고, 감정, 창작원리 등의 범주와 장르의 경계를 해체하며 절충하는 방식을 취해 다양화된 생활방식과 개성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초정보화 사회로 변모되고 있으며, 열린 사고를 띤 타문화권에 대한 긍정적 수용방식과 20세기의 과학발전, 기술혁신 및 산업사회가 빚어낸 양적 성장과 함께 인간성 상실, 환경오염과 같은 20세기가 낳은 폐단에 대한 의기 의식의 고조로 동양적 세계관이 주목되어지고 있으며, 서구문명의 한계를 타개해줄 대안으로써 동양의 사상 연구가 진행됨은 물론, 20세기 후반의 동양국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오랜 역사와 자체문화를 지닌 서양과 대응된 개체로써 동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현대패션에서 동양적 이미지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패션테마로 자리하게 되었다.

패션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반영한 조형 예술이다. 이처럼 동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적이고, 절충적일 뿐 아니라 다문화적이고 대중적이며 혼성 모방적인 속성이 맞물려 동양적 이미지는 21세기 패션에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대패션에 활용되는 동양적 이미지는 일본과 중국풍이 대다수이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는 인식의 정도가 미약할 뿐 아니라 한국의 복식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세계속의 한국을 느끼기 위해선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극동 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적 복식 이미지를 고찰해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21세기 패션에 새로이 재해석 되어 나타난 동양적 이미지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분석해봄으로써 세계 속에서의 한국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한국 패션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동양적 이미지는 동양복식의 외적특성 혹은 내적 사상이 표현된 복식만이 아닌 장식적 요소에서 형성되는 분위기나 연상으로, 본 연구는 21C에 보여 지는 다양한 동양적 이미지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 전문서적 등을 중심으로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와 더불어 한·중·일의 전통복식에 내재된 동양사상과 외적인 조형적 특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 Corresponding Author: k3596200@hotmail.com

2000년 이후 인터넷 혹은 패션잡지에 발표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 21C 패션에 보여 지는 동양적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21C 패션에서 보여 지는 동양적 이미지에는 전통주의적 요소, 절충주의적 요소, 자연주의적 요소, 해체주의적 요소, 미래주의적 요소를 지니면서 다양한 동양적 이미지를 창조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문화 현상과 조류를 함께 하는 현상인 만큼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특성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1C 패션에서 보여 지는 동양적 이미지는 첫째, 포스트모더니즘 영향 하에 전통주의적 요소와 절충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새로이 보여 지는 이미지로, 에스닉, 오리엔탈, 젠 이미지 등이 있으며, 이것은 지역과 시간을 뛰어 넘는 절충적 현상으로 동양적 요소와 서양적 요소와의 만남으로 표현되고, 전통복식의 라인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하여 현대적 소재와 병합하거나 전통복식의 착장방식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연출되기도 하며, 또는 전통문화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전통적 문양을 재해석하여 접목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주의적 요소와 미래주의적 요소가 절충되어 보여 지는 미래적 이미지로, 동양복식의 전통적 요소가 미니멀하고 사이버적인 감각으로 절충되어 표현되며, 특히 미래적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요소로는 소재로써, 하이테크 감각의 신소재가 사용되며, 이러한 신소재의 응용은 실버, 골드, 네온과 같은 색상 개념을 뛰어 신소재가 지난 색상 자체가 미래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셋째, 전통주의적 요소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 특성이기도 한 해체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보여 지는 동양적 이미지에는 탈중심·탈구성적, 불확정성, 빈곤적 이미지 등이 있으며, 탈중심·탈구성적 이미지는 비합리성, 전통성, 개방적인 환경이 의복에 도입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탈 Haute-Couture을 중심의 디자인, 비대칭, 사이즈 제한으로부터의 탈피, 기존의 건축적 복식디자인의 정형으로부터 탈피되어진 형식으로 나타나며, 불확정성 이미지는 불규칙한 움직임 속에 우연한 질서를 낳는 룩이나 착장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착장방식, 인체형을 무시한 직선재단 형태, 착용자와 의복 사이에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비구축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빈곤적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부를 상징하던 복식의 고정관념을 해체함으로써 내부·외부로부터 해체시키며, 청결함의 미학을 해체시키고 불결함의 미학을 추구하며, 패치워크, 탈색 및 염색, 찢기, 올 풀기 및 프린지, 페이딩, 프리미티브 에지, 미완성과 핸드 메이드 등으로 나타난다.

넷째,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과 동경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자연주의적 요소와 전통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나타나는 자연적 이미지로,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편안한 실루엣과 천연의 소재 사용, 사생풍이 도안, 꽃문양, 수묵기법 등을 이용하여 21세기 패션에 나타나고 있다.